

조선해방을위한투쟁에 생명을바친 쏘베트
군대의 영웅적병사들의이름을 조선인민은
영원히 잊지않으리라!

4
법
상

선전원수책

No. 8

북조선로동당중앙본부

선전선동부발행

1948.10

목
차

소베르군대의월거는

일관된해방적 사명의 표현이다..... 一

늬음을다시불러오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군사조약을

체결하는 남조선매국노들의 최후발악상..... 二七

쏘베트군대의철거는

일관된해방적 사명의표현이다

야만적인 일본제국주의의 무례없는 무단적강압으로 일관한
조선통치는 조선인민의 항쟁을 이루키지않을수 없었으며 이
무단적강압을 반대하여 조선인민은 하루번만 쉴기하지않았다
一九一九년의三一운동 一九二六년의 六·十운동 一九二九년
三개월이나 계속된 원산로동자들의 총파업등이 이것이다。
조선민족은 일본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장구한 시기에걸친
혈투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지못하였고
우리의 힘으로 노예의철폐를 꿈지못하고 제二차대전에있어서
쏘베트군대의 위대한 투쟁의 결과로 우리는 해방되었다。

쏘베트군대는 제二차대전에있어서 과시즘을 격파하는데 결
정적역활을 하였음은 천하주지의 사실이다。

전쟁행정에서 독일과 시스트가 쾰른 동맹국토를 침범하여
가진 약탈과 학살을 감행할 때 쾰른군대는 조국을 사수하며
나아가서는 독일과 시스트의 억압하에 신음하는 구라파나라들
과 동방에서 일본침략자의 발밑에 신음하는 수억만의 인민에
대하여 평화와 자유를 도로 찾아주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쾰른대원수는 一九四一年七月三日의 역사적 방중연설에서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쾰른역압자들을 반대하는 이 전인민적 조국전쟁의 목적은 우
리나라위에 내려덮친 위협을 소탕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는 독일과 시즘의 절곡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구라파의 모든
인민들을 원조하려는 데 있다.」

이와같은 쾰른군대의 력사상에 히유(稀有)한 용감성과

위력으로 말미암아 서방에 있어서 히틀러파시스트의 침략근원
지를 소탕함과 동시에 이파시스트의 착취압박 학살 학대 밑에
서 신음하던 파란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뽀
그리아 헝가리를 비롯한 二〇여개의 약소국가와 十여억만인
구를 해방시켰다.

쾰른군대의 위대한 결정적 역할로 서구라파의 침략자 나
치스독일은 一九四五년五月八일 드디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
다.

그러나 동방의 침략자 일본제국주의는 아직(一九四五년
五月八일후) 태평양해상에서 오직 하나나문 파시즘기지를 계속
유지하기에 최후발악을 계속하고 있었고 왜놈들은 자기본토가
함락되어도 이미 만주 조선에 시설된 군비와 최후까지 아

적오든 정예부대 (精銳部隊) 관동군으로 대륙에서 전쟁을 켜
연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쓰메트군대는 일본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하루속히 아세아인
민들을 해방시키며 전쟁의 불길속에서 침음하는 평화애호인
민들을 구원하기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대한 선전을 포고하
였다.

쓰메트동맹이 일본을 반대하는 전쟁을 포고하기전까지는
미국과영국의 군대가들까지도 일본을 격파하기에 수개월을
더히비하리라고 예상하였든것이다.

그러나 정의의용사 쓰메트군대의 영웅적투쟁으로 말미아
라 애군이 그렇게아끼고 자랑하던 관동군도 이찌할도리가없
이 불과 일주일애 쓰메트군대앞에 무릎을꿇고 무조건항복을

하였다.

쓰메트군대는 일본제국주의를 격파하여 이를 조선에서 구
축하기위하여 조선산천에서 피를 흘리였고 조국의 자유와독
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진정한 해방자
이며 원조자로서 나섰든것이다.

쓰메트군대는 북조선의 혁명한 민주건설에있어서도 다만 그
기초조건을 지어주었을뿐만아니라 그전설과정에있어서 거대한
원조를 주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기초를 발
견시킴에 거대한원조를 주었다.

우리민족의 민족적영웅 김일성장군이 정당하게지적한바와같
이 『쓰메트군대가 북조선에 주둔하고있다고하는 유리한 조건은
북조선인민들의 자유스럽고도 활발한 정치생활을 그첫날부터

약속하였던 것이다」

인민정권의 수립 민주개혁의 실시 민주선거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그 어느 사업을 물론하고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떤 면을
불문하고 북조선인민의 건설과 발전에 있어서 쏘베트군대의 원
조가 감축되지 않는 것이 없다. 같은 조선의 일부 미국군대가 전후
하고 있는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에 상도할 때 우리는 쏘베트
군대에 대한 감은을 더욱 깊이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로또브의 상은 조선민족이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 가져보
는 북조선인민위원회대회에 다음과 같은 축전을 보내어 북
조선의 민주건설을 찬양하고 조선인민의 장래를 축복하였다.
「쏘베트인민은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실을 신
중하게 살피고 있으며 귀국가의 부흥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대한

사업을 원조하며 또앞으로도 원조하여 드릴용의가 있습니다 :
: 조선이 아직까지 통일되지 못하였으며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규정된 자기의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난관들이 발생되나 그는 반드시 극복될
것이며 또 가까운 장래에 조선인민은 자기정부를 수립할 것을
나는 감히 확언하는 바입니다 : :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에 근
거하여 조선은 민주주의로선으로 발전될 것이며 민주주의 독립
국가로 될 것이며 또 평화를 애호하는 인민들의 대렬에 동등
권을 가진 일원으로 참가할 것입니다.

쏘련정부는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신속히 실
현하기 위하여 쏘련으로서는 가능한 모든 방책을 성의껏 강
구 실행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여 최선을 기할 것입

니다. 이 와 같이 세계약소민족과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자이며 인류
 의 위대한 태양이신 쏘베트연방을 명수로 하는 쏘베트동맹
 이야말로 세계에서 어느다른나라보다도 가장인민을 사랑하며
 민주와평화를 위하여 헌신투쟁하며 약소민족과 피압박계급
 의 해방과 부흥을 성심으로 원조하는 전세계인민들의 진정한
 한빛이라는것을 그의실천으로서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도브의상으로부터의 우리조국의 완전자주독립을위한 격
 려와 약속의 전문은 그후에도 수차있었다.
 이는 곧 우리조국의 민주통일 완전자주독립을 성실성의껏
 희망하며 이를위하여 철저히 방조해줄것을 힘있게 약속하는
 형제적우의의 표현이었다.

사회주의국가 쏘베트동맹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떤종류의
 민족적불평등 억압 착취와도 광립할수없는것이다.
 쏘베트동맹은 그창건이래 끊임없이르는 전기간에있어서 약
 소민족과 식민지에대한 침략국가들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
 여 투쟁하여왔다.

왜 쏘베트동맹은 피압박민족의 권리를 존중시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투쟁하는가?

쏘베트동맹에는 아무런 착취계급도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자기나타인민이나 다른나라인민들을 억압하려고나 또
 민족과민족과의 사이에 적대심을 유발시키려고 할만한 아무
 러한사회적제도도 쏘베트동맹에는 없는것이다.

때문에 평화애호정책은 유기적으로 쏘베트동맹에 내재하는

것이다.

쓰말린대원수는 쓰련의 대외정책의 본질과 지향을 규정하면서 적쓰동맹공산당(불위위끼) 제十七차 당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대외정책은 명료하다. 이것은 모든 나라들과 평화

를 유지하며 통상관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인 것이다. 쓰베르동맹은 어떠한 나라에 대하여서도 위협하려거나 더 우기 공격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평화를 옹호하며 평화를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위협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니며 전쟁방화자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二배의 반격으로 응수(應酬)할 용의가있다.

쓰베르동맹의 성실하고도 철두철미한 평화애호정책은 쓰베

르 국가의 위력을 표징하는 것이며 자기나라의 위대한 력량에 대한 쓰베르인민의 확신을 표시한 것이다.

쓰베르동맹은 전후 새로운 련합국기구를 창설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애족국인민들에 대한 완전한 민주주의적 자주독립의 급속한쟁취를 적극적으로 원조보장하는 것을 자기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이의 실현을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물로또보 쓰베르동맹의상은 一九四五년五月七일 쟈프탄씨즈

코에서의 신문기자단회의석상에서 다음과같이 말씀하시었다. 「국제안전회의 리익의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애족국가들이 급속히 민족적독립의길에 진출할수있도록하는것을 반드시 고려하여야된다. 이를위하여는 련합국의 특수조직체의 원조가 필요하며 이원조는 반드시 민족평등과 자결원

축의 실현을 추진시킬수있도록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하시였다.

이와같이 레닌-스탈린당(물쉐위끼)이 평도하는 스탈린
동맹의대의정책은 전세계 인류의 행복과 평화와안전을 고수하
는 대외정책이며 전세계 약소민족과 근로계급의자유와 행복
을 보장하기위한 일관된대의정책이다.

우리조선인민은 물론이오 세계의 자유평화에호인민들은
스탈린동맹의 외교정책을 전후 자기들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스탈린동맹의 대외정책의 평등적 우호적 특질을 명백
히알고있느니만큼 이 엄연한 사실앞에는 어떤제국주의라할도
배들의 간교한허위증상도 통용치못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국제반동세력들은 전후소위

「원조」라는 음흉한구실밑에 서방에서 동방에서 약소민족을
다시금 자기들에 예속시키고 전세계를 자기의수중에 장악
하려고 몽상하며 세계쟁을 준비하며 각점령국가 및 약소국
에다 자기의 전초기지를 설치하고 반인민적인 반동도배들을
적극 방조하고 있는반면에 스탈린동맹은 동구라파 및 동남
구라파 제민주주의국가와 우호적인 호상원조조약들을 체결하
고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고수하며 자유로운발전의 길로
적극방조하고있으며 점령국지대에서 전초기지를 구축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과 정반대로 一九四五년말 중국에서 자기군대를
철거시켰으며 특히 우리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하여 성
심성의로 시종일관한 방조를 주었으며 또한 나아가서 조선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의 요청에 응낙하여 자기의 군대를

금년 十二月 말까지 북조선에서 철거할데 대한 회답서를 보내
어왔다.

대문에 조선인민은 쏘베트동맹을 진정한해방자로서 뿐만아니
라 원조자이며 친근한벗으로 뜨거운감사를 드러마지않는다.
쏘베트동맹의공정한 외교정책에대하여는 전세계자유평화에호인
민들은 절대로 신임하며 또이를 지지한다.

一九四八年四月에 쓰딸린대원수께서 쏘분조약체결의 의의를
강조하여 말씀하신데 다음과같은 구절이있다.

『... 많은사람들은 강대국과 약소국사이 에 동등한 관계가 있
을수있다는것을 믿지않으려한다. 그러나 쏘베트사람인 우리들
은 이런동등한 관계가 있을수있고 또는 있어야한다고 인정
한다.』

쏘베트사람들은 어느민족을물론하고 다한가지로 크나 적으
나 할것없이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본질적특징 또는 자기
의고귀한 특수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인정한다.

이특징들은 각민족이 세계문화의 일반적보물고를 보충하며
또는 풍부히하는데 공헌하고있다. 이런의미에있어서 크나적으
나 할것없이 각민족은 동등한 령장에 서고있으며 또한 각
민족은 어떤다른 민족간에 있어서도 동등한것이다...』

쓰딸린대원수의 이말씀이야말로 민족동등에대한 쏘련의 내
외정책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한것이며 우리조선에 대한
쏘베트동맹의 모든 정책도철두철미 이와같은 정신에 령각하
여 실시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 민족동등원칙에 령각하여 약소민족들의 근본적리

해판계에 부합되는 슐베트동맹의 대외정책이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전세계인민들의 절대한 지지와 호를 받는 것은 결코 우연한일이 아니다.

악독한 일본제국주의군대를 구축하고 우리 조국을 구원키위 하여 북조선에 진주한 첫날에 우리들 조선인민에게 선언한 슐베트군의성명을 조선인민들은 북받치는 감격으로써 기억하고 있다.

「……조선인민들이여……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조선백사의 첫째지가 될뿐이다.

화려한 파수원은 사람의 로력과 정력의 결과이다. 이와같은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하여야만 달성한다……」

조선인민들이여 기어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것이 되었다 당신들에게 맡겨졌다. 슐베트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로력에 착수할만한 모든조건들을지어주었다 조선인민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자로 되어야할것이다.

이와같이 슐베트동맹은 우리민족을 해방시킨첫날부터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광명의 전도를 힘있게 약속해주면서 장구한 굴욕의생활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희망과 영예로찬 생활을 꾸미도록 우리민족을 고무격려하였다.

그러면 남조선에진주한 미군의 첫째소리에는 어떠하였는가? 「……본관은 본관에게부여된 태평양미군육군의 최고권한을가지고 이로부터 조선북위三八도이남과 동지의 주민에 대하여

여 군정을설치함

조선북위三八도이남의 지역과 동주민에대한 모든행정권은당
분간 본관의권한에서 시행함 주민은 본관급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속 복종할사 점령군에 대하여반
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보안을 물란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없이 엄벌에처함 군정기간중 영어를 모든목적에사
용하는 공용어로함...』

(백아더장군포고 제一호급 제二호에서)

이것이 미군이 남조선에 상륙하든날부터의 남조선우리동포
에대한 첫호령이다.

오늘날 남북조선의 판이한 정치정세는 이때부터 서로다른
길을걸게되었던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높은 미국의 문사 루이스·스트롱녀사는

一九四七年八月十七일 조쏘구라부에서 개최된 녀사화영다과

회석상에서 다음과같이말하였다

『북조선은 二개년동안에 경란할만한 발전을 하였다.
당신들은 인민정권을 수립하였으며 토지개혁을 실시하였으

며 민족문화와 민족경제를 부흥건설하였다.
내가 월산등지 사회보협휴양소에서 농민들과 담화하였는데
그들에게는 자유와 행복을 향수하는 진실한 감정과 조국전
선을위한 투쟁한 의지가 가득하였다.

북조선인민은 조국건설의 투쟁한 전제조건을만들어놓았다.
북조선의민주력량은 통일되고 단결되었다. 그증거로서 려사적
토지개혁을 단시일내에 승리적으로 실시한것을 들수있다...』

북조선인민의 자유롭고행복스러운생활과 조선의 현실을나
는 영미신문과 소재자를 저술하여 발표하였다。」라고하시였
다. 려사적인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면석회의를 끝파
친후 一九四八년四月二十九日 오후八시 남조선기자단은 김일
성장군과의 회견석상에서 『남은과괴요...북은전설입니다 남조
선을 구원할 원동력은 북조선입니다.

북조선발전은 세계사적의의가 있습니다.

약소민족이 이렇게 단시일내에 큰성과를 얻은것은 려사상
처음입니다。」라고말하시였다.

조국건설의 주력부대인 로동계급을 선두로한 전체조선인민
은 세계평화와 안전의성벽인 위대한 쏘베트인민과 그의혁명
한지도자 쓰딸린대원수에게 뜨거운 민족적 감사를드려마치않

는다.

모스크바三삼회담에있어서의 조선에관한결정 쏘미공동위원회
에있어서의 쏘베트대표단의립장 국련에있어서의 조선문제에대
한 쏘베트대표단의주장 一九四八년五月七일의 남북조선제정
당사회단체 대표자면석회의 요청서에대한 쏘련정부의 『쏘련정
부는 조선으로부터 미국군대가 동시에철거하게끔 조선에서 자
기군대를 즉시철거할 준비가 여전히 되어있습니다.』라는답서
는 쏘련의 정당한로선을 전세계에 뚜렷이 표시한것이다.
이번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쏘미량군
동시철거요청에대한 쏘베트동맹정부의 응낙으로 쏘베트동맹
의 우리조선에대한 형제적우의의 시종일관된성 의는 다시한번
여실히 증명되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인필칭 「민주자주독립」을 지꺼리면서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민족을 「독립」 대신에 예속의 길로 몰아넣으려 하며 「부흥과 재건」 대신에 파괴와 멸망의 길로 유도해 보려고 갖은 시도를 다하여 드디어 오늘날에 와서는 리승만 괴뢰정부와 소위 「한미협정」이란 음모보재기속에서 미군의 계속장기주둔 미군주둔비용의 조선인민에의 부담 치외법권설정 미국인의 자유무역등 갖은 망국멸족의 조건물을 꾸미고 있는 이업중한 민족적 위기에서 우리인민의 민족적분결과 각성은 더욱더 높아가고 있다. 이때야말로 누가 진정한 우리민족을 위하여 도와주는가를 어느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며 위대한 프베트동맹에 대한 감사를 다지한번 뜨겁게 하며 일제를 대신한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증오는 격발된다.

우리들 三천만 전체인민들은 이 엄숙하고도 긴장된 시기에 있어서 이 진정한 약소민족의 권리를 존중시키고 우리조국에 자유로운 발전의 재조건을 지어준 프베트인민과 더욱더 친선을 굳게 하며 우리민족의 민족적영웅 김일성장군을 수석으로 한 통일중앙정부를 높이 받들고 그 시책의 전조선적인 실천을 위하여 투쟁하며 애국반동 리승만괴뢰정부를 타도분쇄하는 길로 일치단결하여 총진군하여야 할 것이다.

왜놈을 다시 불러오며 미제국
주의자들과 군사조약을 체결
하는 남조선 반동매국노들의
최후발악상

정국을 분별하며

민족을 노예화의 길로 이끌며 우리나라를
미제국주의 자들에게 팔아먹으려는 남조선 친일파 민족반역자
반동분자들은 최근에 와서 소위 행정권이양을 둘러싸고 일종의
극악하게 되었으며 미제국주의 자들과 온갖 매국적협정을 체결
하여 조국과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고 있다.

물론 남조선 단독피정부의 피주 리승만이 우리 조국을 미
제국주의 자들에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예속시키는 방국
적 협정을 체결하리라는 것을 조선인민이 벌써부터 잘 알고 있
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소위 『대한민국』 정부
가 선포된 이후 이 정부의 이름으로써 리승만이 『한미협정』을 체결
하고 조국과 후생의 장래를 팔아먹기에 분망하고 있는 것을 그

렇게 피의 (怪異) 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찌기 김일성수상은 조선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전조선인민을 구국투쟁 (救國鬪爭) 으로 호소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월가의 주인들은 세계의어론을 기만하여 남조선과 북정부의 요청이라하여 남조선장기주들을 합병화시킬것이며 남조선정부와 조약상 체결이라하여 남조선에대한 경제적 속화정책과 식민지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게될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망국멸족의 소수침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굴로된 단독피북정부가 조선인민의명의로 행세하는것을 방관하기만한다면 우리의후손들은 우리를 용서하지않을것입니다. . . .』

이와같은 피북정부가 발표한 어떠한법령이던지든 물론하고 조선인민은 다 부인하게될것이며 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주구 리승만을 피수로하는 남조선피북정부와 체결한 어떠한조약이던지 우리는 부인할것이며 그에대한책임을 지지않으리라는것을 세상에 선포하여야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 김일성수상의 이에견의 정당성은 오늘 남조선피북정부의 피수 리승만이 소위 『대한민국』정부의 명의로써 미국과 체결한 모든 대국적협정으로실증되는것이다.

그러면 최근 남조선매국도당들은 조선인민의 이름을 사칭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어떠한 매국적협정을 체결하였는가? 리승만을 피수로하는 남조선피북정부는 소위 『하미회담』의

결과에서 조국을 군사적으로 미제국주의 자들에게 예속시키려는 소위 「미군사협정」은 체결하였으며 조국의 부원과 민족의 경제를 자기들의 상적인 미제국주의 자들에게 팔아먹는 「재정협정」을 체결하였다.

八月二十五日 남조선의 소위 공보처에서 발표한 「하미협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군정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에 정권이양에 관한 제협정의 교섭은 상호양해의 분위기속에서 종료되었다.

국방군에 관한 카협의는 금일대한민국 대통령이며 헌법상 한국군총사령관인 리승만박사와 주한 미군사령관 존알 하-지록군중장이 서명하였다.

차협정은 「잠정적인것으로 「대한민국」과 미주둔군의 공동안

전보장을 위하여 한국전국방비군(경찰 통위부 해군경비대)의 통발권과 통수권을 가급적 급속히 점진적으로 이양」할것을 규정할것인바 「협정기간중에는 미군이 통위부와 해안경비대의 훈련과 장비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월조를 계속할것이다. 또한 一九四七年十一月十四일 부유·연흥회 제2결의 제4절에 표현된것과여히 「대한민국」에서 철퇴를 완수하기까지 미군주둔중에 요구되는 지역과 기구의 자용을 규정하였다. 본협정은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퇴하기까지에만 유효하다.」

다시말하면 패국도 리승만은 여기에서 미군군대의 철퇴의 날자에 대하여서는 할바디도 언급하지않고 경찰과 군대의 통수권을 미국인들이 가진다는 패국적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미군 주둔기간중에 소요되는 지역과 기구의 사용을 미군에게 마음대로 양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또 『재정협정』이라는 것으로써 남조선
을 미국 월가의 상품시장화하기 위한 약속을 미국인들과 하
였다.

남조선민전에서 인민에게 호소한 성명에는 소위 『한미회담』
에서

1. 금후미국인의 거주자유 (居住自由)
2. 미국인의 무역자유
3. 미군의 『한국국방군』 지휘권
4. 외교권의 미국인행사
5. 미국인의 범죄사실이 발각된시에 한미인 (韓米人) 반반

식선출하여 재파하는 치외법권등의 五개조가 서명 조인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군은 一억팔라의 차관 (借款) 을 제공하기로 하
고 과거 一천五백만달라차관의 대상으로 소림광업 (小林鑛
業) 상동중석광산 (上東重石鑛山) 의 개발권을 요구하였으며
여리곶의 땅과 여리곶의전물과함께 반도 (半島) 호렐까지 빼아
서 가지었다.

이러한 『한미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군사경찰권이 여전히
미군에게 보존된 조건하에서 매국노 이승만이 지난九월三일
미국 트루매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가운데서 앞으로 더욱 『미국
의 경제원조가 전대로 필요하다』고 애걸하것도 결코 우연
한것은 아니다.

오늘 三천만 조선인민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추구인대
국노 리승만이가 체결한 『한미협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를 잘 알고 있다.

조선인민은 一八八二년 제물로 조약 이후 一九一〇년 망국에
이르기까지 개혁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압력을 두려워하는
색여저가는 봉건 지배층들이 침략적 日本제국주의자들과 체결
한 여러개의 망국적 조약들을 골수에 사모치게 기억하고 있다.

一八八二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 조
선 지배층들을 사족하여 소위 일본공사관보위라는 구실 밑에 조
선내에 군병을 주둔시키었으며 일본공사와 령사를 따라단이
는 무장수원을 내어보냄으로써 조선의 수도를 사실상 점령하
는 소위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一八八四년 한양 조약으로써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경제침
략을 위한 제반 권리를 부여하였고

一九〇四년 한일의정서로써 내부정치에 간섭할 수 있는 지도적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一九〇五년 을사보호 조약으로써 조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팔아먹은 것이다.

이와 같은 매국적 조약들은 무력한 반동적 지배세력이 자기
들의 지배권유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되었으며 그리하기
때문에 『이리고 약한 한국 정부를 원조』 운운의 허울 좋은 술어를
조약 본문에 늘어놓았던 것이다.

오늘 한미협정에 『한국 정부』를 원조하기 위하여 미국군대
의 계속 주둔이 필요하며 조국의 군사 정치 외교 경제권을

미제국주의자들이 장악하여야 된다는 식어빠진 남조선 매국도
당들의 이론이 리조말엽에 매국역도들의 이론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의 조선인민은 누구하나 모르는이 없다. 그렇기때
문에 조선인민은 과거와같이 망국적 비극을 다시연출하려는
리승만도배의 배주적 협정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소위 행정권이양을 실행으로 보더라도 무엇보다나 중요한 부
문이 이양되것은 없다. 예를들면 지난九월十日 조인(調印)
된상공부이양수속협정에 의하여 (1) 자금 (2) 민간물자보급기
구 (3) 민간물자보급품으로써하는 남북교역(南北交易) (4)
국내석탄과 수입 석탄에대하자금 (5) 군대용 물품 (6) 석유
배급기구... 등은 미군관할하에 속하고 그의의것은 소위「대
한민국정부」에 속한다고하였다.

어느민족의 력사에서 그민족의 경제생활의 지도적부문인
자금 물자보급 국내석탄생산 군대용물품 석유배급및 기타들
을 외국관할하에 두고도 경제적으로 독립한나라가있으며 자
주독립국가민족으로 된사실이 있는가?

국내의 경제자원을 외국의지배하에두고도 독립운운하는놈
은 미국뺨으로 자라 미국에 조국을팔아먹는 매국노 리승만
이나 그렇지않으면 일본천황을 받들어 『황국신민의서사』를
높이부르던 김성수 장택상이나 조병옥같은 망국역족놈들의의
는 없는것이다.

지금 리승만이나 그도당들의 위악은 여기에서만 그치는것
이아니라 그들은 최후의말악을다하여 이러한 매국멸족의 협정
을 체결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군대의 계속적인 남조선 주

문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양군철회』 『주지독립』 운운하던 리승만
김성수등 담조선 친일반동의 매국적죄상을 다시한번 상기
(想起)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조선친일반동들이 최초 조선문제에대한 모스크바삼강회
의결명을 『신략통치』라고하여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쏘
미공동위원회의 당시에 『양군철회』 『타치없는독립』을 떠들었다
면 쏘미공동위원회가 결별된후 쏘련측으로부터 양군동지철회가
물 세의 하자 그들은 쏘련군의 철회와 미군의 계속주둔을 파
괴하게도 주장하지작하였다. 더욱이 최근에와서 그들의
소 (騷音)은 일층 높아졌다. 남조선피괴정부에서 『유·엔』에
괴절한 장면 김활란등은 머저미국에들러 유·엔에서 『평화와

절서가 유지될때까지 미군이 조선에서 철회하는것은 현명한
일은 아니다.』라고 언명하였으며 단독피괴정부의 내무장관
윤치영은 『금후 최소 3년간 미군의 계속주둔을 요청한다.』
라고 애걸하였다. 쏘련군철회 응낙에대한 쏘련정부의 답서가
보도된적후에 매국노 리승만은 『우리가 국방군을 조직할수
있을때까지 미군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유지할의무를 보유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여 매국노들의 정체를 백일하에
더욱 똑똑히 폭로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조선인민이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것은 미제국
주의자들은 쏘련과는 반대로 남조선에주둔한 자기군대의 철회
퇴를 원치않으며 조선을 식민지화하는태 있어서 자기들의 주
구 리승만도배들의 원조도 부족하여 다시금 우리민족의불구

대천의 원쑤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리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외국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매국노 리승만은 괴뢰 정부의 소위 「국방군」을 조직하기 위하여 조선민족의 철천의 원쑤 일본인장교들은 포함한 대규모의 특별군사시설단을 우 리강토에 불러오게 하였다. 이것은 전남조선주둔미군사령관 하 지푸장이 리승만에게 보내온 서한가운데 지적된 것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여기에는 미군이 리승만의 요청에 응한다고 하였으며 이사철대가운데는 전일본동부군관구 참모장다찌미(立尾) 중장과 이와바다(岩畑) 소장을 비롯한 七十八명의 일본 인장교가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소위 「국방군」의 조직과 전 루훈련을 담당한다고 한다.

천인공노할 이러한 정책은 매국역도 리승만 김성수도 당과

그의상전 미제국주의자들이 앞으로 더욱더 민족분열정책과 남조선식민지화의 반인민적반동정책을 강화하며 한층더, 류혈적인 인민학살과 동포상잔을 조발하기 위하여 만들은 가장 흉악한 반동행위인 것이다.

너욕이 남조선천일반동들이 일본원쑤와 다시금 손을잡으며 일본의 반동을 해방된 조선땅에 불러온것은 결코 이것이 처음인것은 아니다.

최근의 레로써 민족적분열을 폭발시킨것은 조선인민을 압박하며 우리민족의고혈을 착취하던 전총독부 하부국장 시오미라(鹽原) 재무국장 미즈다(水田) 전조선은행총재 기미지마(君島) 등이 미군의초빙에의하여 남조선에왔던것이다. 또 이 시기에 있어서 전라남도 미국인기자는 전일본의고관을 초청

하기로 되었다고 공인하였

오늘 『국권의복』은 임치며 『나를 따르라』고 고함치는 망
국노 미승만은 이렇게 하여 우리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일
본제국주의자들과 다지금 손을맞잡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
려는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더욱 자기들의 충성을 다하여 조
국과 민족을 팔아먹고있다.

누구가 외국에군사통치권을 주고 조국강토를 마음대로 처
리할수있는 권한을 주고도 해방이 되었다고 감격하며 독립이
되었다고 만세를 부를것인가?

오직 감격하며 만세를 부를자는 때국노 미승만과같은 역
도의의에는 아무도없는것이다.

남조선매국노들의 만동이 제아무리협약하여도 단결된 조선

인민은 그들의 매국적충책을 분쇄할것이며 오늘의 조건하에
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군대를 조선땅에주둔시킨 하등의
구실도 가지지못한다.

조선인민은 조선에서 외국군대가 철퇴할때나 또는 철퇴한
이후에도 전조선에서 완전한 절서와 사회안전이 유지되리라
는것을 확신하면서 미군도 쓰련군대의 수범에따라 즉시철거
할것을 완강히 요구한다.

우리민족의 절제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성응인 기일성수상
은 정부의정강발표에서 『남북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
된 중앙정부는 전조선인민들을 정부주기에 든든히 단결시켜
가지고 통일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급속히 건설하기위하
여 전력을 다할것이며 국토의안정과 민족의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절박한 조선으로되는 양군동 칠거에대한 쏘련정부의 제의를 실천시키기위하여 전력을 다할것입니다』라고 강조하시였다.

이것은 二천만조선인민의 일치한의사이며 강경한요구이다. 조선의 통일독립을 갈망하며 끊임없이 투쟁하여온 조선인민은 어떻게 이이상더 미제국주의와 그의주구 남조선친일반동의 망국적 책동을 그냥 내버려둘수 있겠는가?

조국의 독립과 통일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들은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주구 리승만 도당을 타도하기에 총결기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와 그의초대수상인 김일성장군의 주위에 굳게 뭉치어 조국통일의길로 용감히 나아가고있다.

— (끝) —

一九四八年十月二十五日 印刷
一九四八年十月二十九日 發行

發行所

北朝鮮勞動黨中央本部
宣傳煽動部

平壤特別市里門里八五番地

印刷人 趙容徽

平壤特別市里門里八五番地

印刷所 勞動黨出版社

電話 五〇四〇一三番

(定價七圓)

K-3529-3539

發行部數 30,000部

SHIPPING ADVICE NO 2007
BOX 7
ITEM 75